

'우공이산'의 역사 더듬는다

도화현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초대전

작가 51명 참여 평면·입체 등 51점 선봬

고흥군 도화면 땅끝로에 위치한 도화현미술관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옛 도화초교 단장분교가 폐교하며 박성환 관장이 지난 2000년 매입해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도화현미술관은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전시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지역민에게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20주년을 기념해 미술관에서는 '도화현 20주년-20이산(移山)'을 주제로 10월 30일까지 기획초대전들을 마련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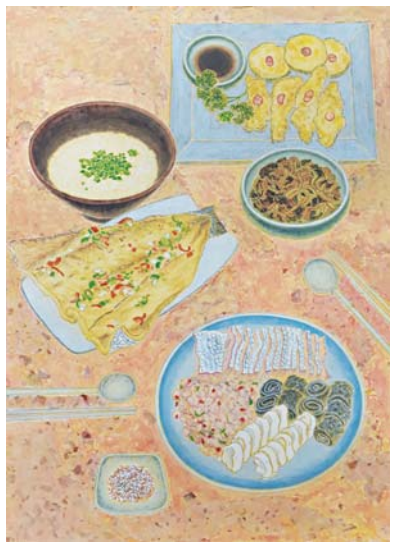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지난 20년간 남도 끝자락에서 한 줌 한 줌 예술의 산을 쌓아 올린 그 동안의 역사를 더듬는 자리다.

그간 개인전을 열었던 작가들이 120여명,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전시

했던 작가들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도화현 20주년-20이산' 전에는 51명의 작가가 참여해 평면과 입체 등 5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금원, 구정희, 박동근, 박선제, 박성환, 박수경, 서영실, 신선운, 오경규, 윤운덕, 이호국, 장용림, 장창익, 정정임 등 참여작가들은 깊고 얇은 잔내의 온도, 지적이는 새소리 합창, 고독과 쓸쓸함, 잔잔한 바람, 빗소리의 아우성, 공기의 울림과 떨림, 거센 비바람과 파도, 느림의 전율, 종종한 성좌 등 작품을 통해 깊은 내면의 울림을 전한다.

이영희 작가의 '삶의 길-흔적의 의미', 이승우 작가의 '도화현에서', 이권호 작가의 '미황사', 박수경 작가의 '민어전' 등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작품에서부터 장창익 작가의 '일기', 전성규 작가의 'Hidden Passage 20-Walking 2' 등 비구상에 이르기까지 우공이산의 역사를 작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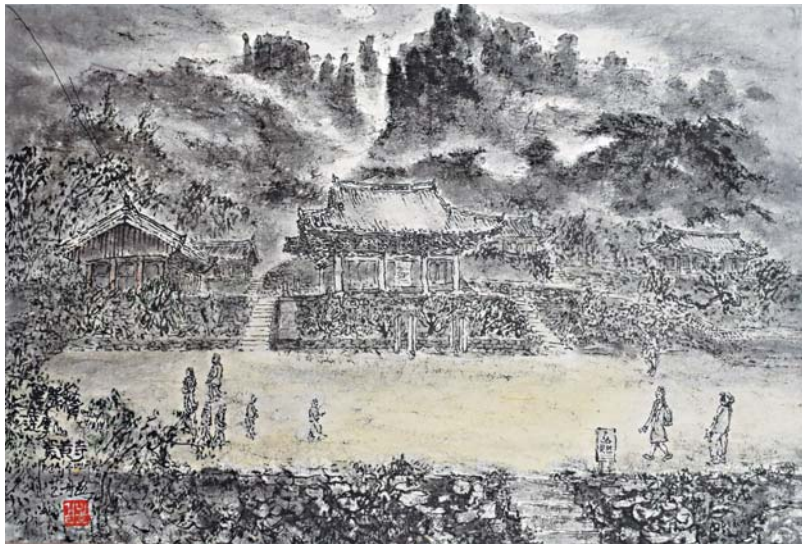


박수경 작 '민어전'

로 느낄 수 있다.

박성환 도화현미술관장은 "작품을 통해 드러난 작가의 생각이 관람객과 소통할 때 태산을 옮길 수 있고 이는 예술의 힘이며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외로움과 고독, 삶의 내·외부의 고단한 충격에도 꿋꿋한 정자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작가와 관람객의 성원 감사드리며 또 다른 20이산(移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연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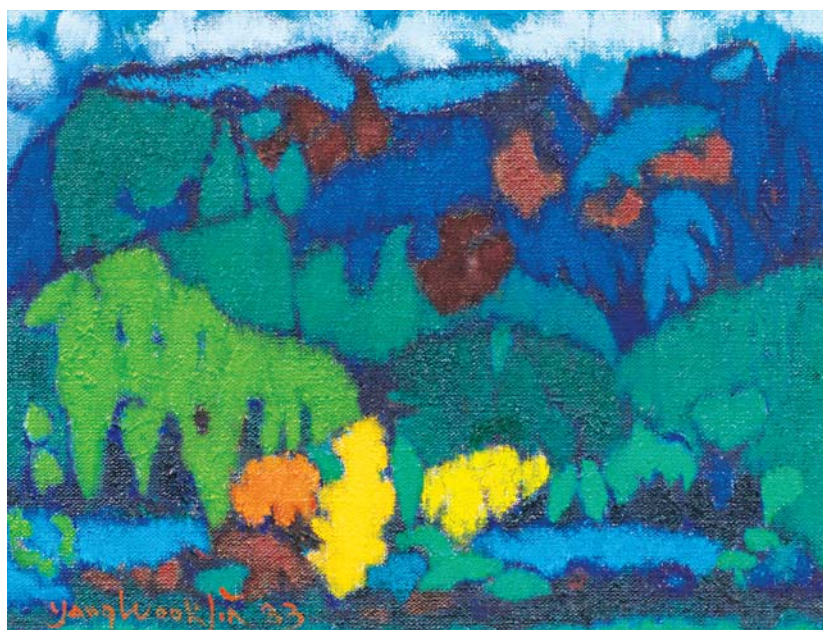
이권호 작 '미황사'



박일정 작 '바람부는 날'

유명작가 소품 '선물 100선'

(주)에이옥션, 17일까지 특별 경매 진행



진양욱 작 '평경'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 (주)에이옥션이 추석을 맞아 색다른 특별 경매를 편성했다.

에이옥션은 '선물 100선'이라는 타이틀로, '고마운 분께 선물해도 좋은 작품, 나를 위한 선물로도 좋은 작품' 100점을 오는 17일까지 경매를 진행한다.

작품은 미술시장에서 유명한 작가들의 소품이 주를 이루며 경매는 10만원부터 시작한다.

대표 작품으로는 '이탈종의 백두산 기행 실경', '청전 이상범의 장강만리', '진양욱의 풍경' 등이다.

이외에도 임직순, 김병중, 사석원, 남관, 심전 안중식, 의재 허백련, 소치 허련, 위정 오세창 등의 작품이 출품된다.

경매 마감은 17일 오후 2시부터, 에이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마감된다.

응찰은 에이옥션에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참여 가능하며, 경매의 응찰 및 낙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연수 기자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 15주년 특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窓)' 가을호(통권 50호)가 나왔다.

지난 2005년 4월, 재단 창립에 발맞추어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이라는 취지로 첫 호를 발간한 '창'은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비평과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통권 50호 특집으로는 재단 창립 15주년을 맞아 내·외부의 눈으로 들여다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속살과 미래'를 주제로 조명한다.

국제펜클럽 광주지부 박선영 회장의 '의지와 권력'에 관한 제언으로 창을 열며, '문화 특목'에서는 전·현직 편집위원장이 김성광주학생독립기념사

협회 이사장과 김정희 광주문인협회 수석부회장이 만나 '창' 50호 발간 과정의 소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문화 진단'에서는 천득염 전남대 교수가 광주시립 역사민속박물관 개관 이후의 소회를, '문화현장'은 정성구 도시문화집단 CSD대표가 광주시민회관의 재탄생 100일 들여다보기,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이복순 명창의 인터뷰를 통해 소리로 마추는 예술인의 삶에 대해 조명한다.

표지는 우재길 작가의 그림 'Light 2014-1D'가 장식했다.

'창'은 공공기관 및 문화유관기관, 시민들에게 배포되며,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연수 기자

금주 개봉 영화

3개의 얼굴들



유명배우베르나즈자파리에게 먼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의 영상이 전달된다. 가족들이 배우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반대하는 자 극적인 영상이었다. 직접 확인하기결정했던그녀는 영화감독자파르파니와 함께 소녀를 찾아 먼 길을 떠난다. 자파르파니 감독. 베나즈 자파리 주연. 상영시간 100분. 9일 개봉

나를 구하지 마세요



아빠가 떠난 후 도망치듯 엄마(양소민)와 함께 이사 온 열두 살 소녀 선유(조서연)는 엄마마저 자신을 떠날까 불안함이 앞선다. 그러나 전학 후, 옆을 맴도는 명랑한 정국의 모습에 선유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다. 정연경 감독. 조서연, 최로운, 양소민, 선화, 이휘중 주연. 상영시간 97분. 10일 개봉

테스와 보낸 여름



지구에 남은 마지막 공룡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하던 '샘'은 언젠가 혼자 남겨질 경우를 대비해 '외로움 적응 훈련'에 돌입하지만 섬에서 만난 소녀 '테스'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다. 스티븐 바우터루드 감독. 소니 코프스 판 우테렌, 조세핀 아렌센, 트에보 게리츠마, 제니퍼 호프만 주연. 상영시간 84분. 10일 개봉.

뉴 뉴턴트



어느 날, 대재앙이 덮친 마을에서 혼자 살아남은 대니(블루 헌트 분)가 이곳에 들어오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힘을 두려워하고 다들 줄 몰랐던 신탁 돌연변이들은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각성하기 시작한다. 조쉬 분 감독.

메이지 윌리엄스, 안야 테일러 조이, 찰리 히튼, 헨리 자가, 블루 헌트 주연. 상영시간 94분. 10일 개봉. /오지현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6445-937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5431-4006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666-5888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 T. 061-743-4200 / F. 743-4202